

마음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글쓰기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마다 글쓰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은 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있어 글쓰기는 언제나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대학에 들어와 글을 쓸 기회가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글쓰기에 자신감이 늘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글을 쓰기 위해 띄우는 모니터의 텅 빈 창은 마주할 때마다 늘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왔다. 무엇이 글을 쓰는 것을 어렵게 하는가. 돌이켜 보면 내게 있어서 글쓰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부담감 그리고 이로 인한 무거운 마음만으로 보내는 공허한 시간들이었다. 글을 쓰기 위해 앉아 있지만 막상 머릿속의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아 무념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글쓰기의 가장 큰 장벽이었다. ‘잘 써야한다’,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써야한다’, ‘매끄럽게 써야한다’ ... 단번에 원하는 글을 써내려가고 싶다는 강한 마음은 오히려 생각들을 흐렸고 글의 진척을 느리게 했다. 좋은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의 이 벽부터 허물어야만 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원활하게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글을 통해 부담에 따른 무기력함을 버리고 글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나의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논해보려고 한다.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독(多讀)’, 즉 많이 읽는 것이다. 다독은 내가 생각하는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이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필수적인 단계였다. 설령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분야와 관련된 한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있는 ‘읽기’가 요구되었다. 특히 연구논문을 쓰는 경우에는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선행연구들을 읽는 것이 글쓰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여 간과한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선행연구 자료를 많이 읽어두는 것은 이후 글을 쓰는 데 막힘을

● ● ●
백 지 연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이동학부 학부생

피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었다.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이들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는 것은, 관련 용어 및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지식기반을 확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쓰려는 글의 주제를 구체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다른 이는 그 주제에서도 어떠한 점에 더 주목했는지, 연구의 경우 그들이 자신의 연구 한계로 어떤 점을 지적해 두었는지, 또한 어떤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는지 등... 다른 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은 나의 주제 선정 과정에서도 간접적인 피드백 역할이 되어주었다. 또한 읽는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기억해둘만한 내용은 따로 적어두고 그 출처를 정리해 두면 차후에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글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독을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지식과 자료는 글쓰기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기반이 되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의 '얼개'를 짜보는 것이다. 글의 얼개짜기 과정이 번거롭다거나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간주하여 가끔은 대강 짜놓고 넘어가거나 생략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건축에서는 설계도가 기본이듯이, 글을 쓸 때 개요가 짜여있지 않은 상태로 글을 쓴다면 글쓰기의 진척을 내기 어렵다. 실제로 글의 첫 문장을 시작하고 나서 한 문단을 써내려가기까지는 쉽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 이후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해내는 데까지는 수없이 많은 막막한 순간들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 미리 간략한 개요를 짜두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글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글의 얼개짜기를 할 때에는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보지 않고 처음 생각해본 글의 구성보다 더 나은 순서를 구상할 수 있는지, 각각의 항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체화시켜 놓으면 이후에 글쓰기 작업에서 참고하기에 좋은 글의 밑그림이 되어주었다. 또한 글을 쓰기 이전이라도 얼개를 짜는 과정에서 순간 떠오른 유용한 문장이나 표현, 혹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자료나 참고문헌에 대한 생각들은 반드시 얼개에 메모해두었다가 이후에 글을 쓸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 얼개를 짜는 과정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의 구성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단계이지만, 쓰려는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나 핵심적인 흐름을 놓쳤을 때 도움이 되는 글쓰기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퇴고(推敲)', 즉 자신의 글을 다시 읽어보고 수정하는 일이다. 퇴고는 글의 오류를 줄이고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퇴고를 하겠다는 글쓴이의 마음가짐만으

로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부담감을 줄이는 순기능을 가진다. 다시 읽어보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마음가짐은 처음부터 글을 완벽하게 쓰려는 중압감을 덜어주어 보다 수월하게 초고(草稿)가 완성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실제로 초고작성 이후 끊임없이 반복하는 퇴고의 과정은 작은 문법적 실수뿐만 아니라 글의 문맥, 어휘 등을 글의 내용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교정하고 자료의 적합성도 재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글의 전달력을 높이고, 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물론 자신의 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글쓰기 과정의 퇴고는 자신이 쓴 글이라도 다시 읽어 보았을 때 자신조차 불편하게 읽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글쓴이 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읽히지 못한 글은 분명 다른 이에게도 자연스럽게 읽힐 수 없기에, 이는 좋은 글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어떤 단계보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자신의 퇴고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다른 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다시 수정해나감으로써 최종적인 퇴고를 거친 이후에는 다시 읽어보아도 보람된 한 편의 '좋은 글'을 완성하는 데 이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드는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꼭 글을 잘 쓰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인고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글이라면 충분히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그렇게 완성된 글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 된다면, 혹은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생각을 글로 남긴 뜻 깊은 기록이 될 수 있다면 글쓰기는 충분히 보람된 일이며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글쓰기는 처음부터 굳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글쓰기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나에게는 막막한 어려움이었지만, 무엇인가 노력하는 나에게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다. 글쓰기는 한 번의 타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 번에 글을 '잘 써보겠다'며 힘겨운 마음으로 글쓰기를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글을 써나가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글을 보듬는 것, 또한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자신의 글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 결국 글쓰기의 왕도 역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